

SKT, 해킹 후폭풍… 유심교체 오픈런·집단소송 움직임

오전 7시30분부터 대리점 줄서기도
유심교체 온라인 예약·PASS 앱 먹통

집단소송카페 가입자 1.8만명 달해
공동대응 공식 홈페이지도 개설
유심 해킹사건 국민동의 청원 진행

SK텔레콤의 중앙 서버 해킹에 따른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건의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가입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오픈런을 불사하고, 집단 소송을 위한 대응 카페도 만들어 모였다. SK텔레콤이 내놓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만으로는 불안감을 느낀 이들이 추가적인 조치를 위해 PASS 앱으로 물리면서, PASS 또한 먹통이 됐다.

2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SK텔레콤 직영 대리점인 T월드에서 이날 오전 8시 이전부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는 오픈런이 있었다. 모두 SK텔레콤 고객으로 유심 교체를 위함이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줄은 옆상가까지 이어졌다.

서울시 중구 명동 T월드에서 일찌감치 줄을 선 김수영(45)씨는 “마음이 급해 일단 연차를 내고 왔다”면서 “이렇게 심각한 사건을 덮으려 했더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가장



28일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을 찾은 시민들이 유심 교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먼저 도착한 사람은 7시 30분 경 도착한 김모씨였다.

박모(24)씨는 노인들을 염려했다. 박씨는 “나는 대학생이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빨리 알았지만, 노인들은 어렵하나 싫다”면서 “SK텔레콤이 직접 전화하고 문자하며 알려야 하는 게 아닌가 싫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전날 ‘사이버 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28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 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무료로 진행한다’며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28일부터 개시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이날 SK텔레콤의 유심 교체 온라인 예약 시스템은 예약을 위해 사람들이 몰리면서 최대 10만 명대까지 대기자가 늘어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다.

접속에 성공해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예약을 완료하더라도 날짜 등을 선택할 수 없어 편의성이 떨어졌다.

PASS 앱도 25일부터 먹통이 됐다. PASS 앱을 이용하면 명의도용방지과 피싱 사이렌 등 보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다. PASS 앱은 28일 현재 “KAI

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이용량 급증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되거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안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신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가입자들은 집단소송 등 공동대응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SK텔레콤 가입자에 의해 27일 네이버에 ‘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가 개설됐는데, 28일 오후 2시 현재 가입자 수는 1만8353명에 이르고 있다.

카페 운영진은 “본 카페는 집단소송 준비를 위한 피해자 모임을 구성 중”이

라며 “사건의 성격상 피해자 확인 및 자료 수집 후 법률 대응이 병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단 소송에 참여할 법무법인 등의 문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집단소송 카페 외에도 ‘SKT 유심 해킹 공동대응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해당 홈페이지 운영진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에 대해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경 악성코드로 인한 고객 유심 관련 정보 유출 정황이 내부 감사를 통해 발견됐다. SK텔레콤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즉시 악성코드를 삭제하고 해킹이 의심되는 장비를 즉각 격리 조치했다. 이후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사고 사실을 신고했으며, 22일 오전 10시에는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도 관련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 중이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지난 25일 서울 을지로 사옥에서 해킹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모든 SK텔레콤 고객분들께 유심보호서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해 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디지털 취약 계층 고객에게는 상담사가 직접 전화로 가입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 CNS, 클라우드·AI로 역대최고 실적

(1분기 기준)

1분기 매출액 1.2조, 영업이익 789억
전년 동기비 각각 13.2%·144.3% ↑
클라우드·AI 사업 매출 30.1% 성장

인공지능 전환(AI) 전문 기업 LG CNS가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을 등에 업고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LG CNS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2114억원, 영업이익은 789억원으로, 같은 분기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전년 동기에 비해 매출은 13.2% 늘었고, 영업이익은 144.3% 뛰었다. 특히 매출은 2018년부터 8년 연속 성장세를 나타내며, 경쟁사인 삼성SDS를 바짝 쫓는 모양새다.

앞서 삼성SDS는 지난 24일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한 3조4898억원, 영업이익은 18.9% 늘어난 268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LG CNS와 비교해 매출액은 약 2.9배, 영업이익은 약 3.4

배 많은 수준이다.

두 회사 간 실적 차이는 LG CNS의 주 사업 영역이 아닌 물류 부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올 1분기 삼성SDS의 물류 부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1조8894억원이었다. 전체 매출액에서 물류 부문을 뺀 나머지는 1조6004억원으로 LG CNS와의 차이가 좁혀진다.

LG CNS도 디지털 물류 사업을 추진 중인 하나, 삼성SDS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삼성SDS가 국제화물 운송, 물류센터 운영 및 내륙 운송, 프로젝트 물류, 이커머스 등 물류 네트워크 인프라와 첨단 IT 기술을 결합한 토털 서비스를 선보이는 ‘종합 물류 솔루션’ 기업이라면, LG CNS는 스마트 물류 및 자동화 기술을 통해 미래형 공급망을 지원하는 ‘디지털 혁신 파트너’에 가깝다.

LG CNS의 분야별 성적을 살펴보면, 클라우드·AI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1% 성장한 7174억원으로 집

계됐다. 전체 매출 중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사업 비중은 약 59%를 차지했다.

NH농협은행, 미래에셋생명, 신한카드 등 금융 기업의 AI 사업을 수주하고, 에스오일을 포함한 여러 제조 기업의 공장을 AI 기반 지능형 공장으로 고도화하는 프로젝트를 맡았으며, 게임사·물류 회사 등 다양한 기업들의 클라우드 전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매출이 증가했다고 LG CNS는 설명했다.

스마트 물류·팩토리·시티 등 스마트 엔지니어링 사업 매출은 2063억원으로 집계됐다. 물류 로봇 도입이 늘고, 국내외 교통 시스템에 스마트 기술 적용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으로 매출을 낼 수 있었다고 회사 측은 부연했다.

미래 먹거리인 AI 데이터센터 영역에서는 특수 액체로 서버를 냉각하는 액침냉각 기술, 디지털트윈 기술 등을 필두로 인도네시아 내 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또 현재 개발 중인 ‘에이전틱 AI’는 연내 상용화해 비즈니스 레퍼런스를 쌓는다는 목표다. /김현정 기자 hjk1@

KT, 장기고객 초청 프로그램 ‘펫밀리데이’

내달 18일 춘천 ‘강아지 숲’서 진행

KT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기고객 초청 프로그램 ‘초대드림’의 아홉 번째 행사로 ‘펫밀리데이(Petmily Day)’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초대드림은 2024년 7월부터 시작된 KT의 대표 고객 초청 프로그램으로, 스포츠, 축제, 캠핑,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이벤트에 장기고객을 초청하는 행사다.

‘펫밀리데이’는 5월 18일, 국내 최대 반려견 테마파크인 춘천 ‘강아지 숲’에서 열리며 KT 장기고객 중 반려견 가족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참여 고객은 펫 장애물 훈련 체험, 펫 레스토랑 메뉴 제공, AI 기반 펫 가족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으며, 반려동물 전문가 설채현 수의사와 함께



KT 모델들이 5월 장기고객 초대드림 ‘펫밀리데이’를 알리고 있다.

/KT

하는 펫 건강 클래스도 참여할 수 있다.

응모는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KT닷컴 초대드림 이벤트 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응모자 전원에게는 KT의 펫상품 3종(펫케어, 펫보함, 펫상조)에 대한 할인 혜택이 문자로 제공된다. 당첨자는 5월 13일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카카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선정

카카오테크 캠퍼스로 IT 인재양성

카카오는 지역 기반 IT 인재양성 프로그램 ‘카카오테크 캠퍼스’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ESG 지원형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3기를 맞이한 ‘카카오테크 캠퍼스’는 카카오의 ESG 교육 사업으로, 부산대·전남대·강원대·경북대·충남대 등 5개 지역 거점 대학교와 협약해 실무 중심의 개발자 양성 교육을 제공한다.

올해는 카카오 현직 개발자 멘토링,

1:1 코드 리뷰, 취업 특강 및 커리어 코칭 등을 강화해 참가자 맞춤형 실무 중심 경험을 지원하고 있다.

카카오는 디지털 사회 전환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 고용과 지역 인재 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할 계획이다.

카카오 CA협의체 권대열 ESG위원장은 “카카오테크 캠퍼스는 지역 청년들에게 기술인재로의 실질적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카카오의 ESG 실천 사례”라며 “앞으로도 카카오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에 지속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바우처 서비스 도입

펫 바우처 시작으로 혜택범위 확대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에 맞춤형 쇼핑 혜택을 제공하는 ‘바우처’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네이버는 28일 바우처 서비스 베타 운영에 들어간다. 바우처 서비스는 네

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이라면 추가 과금 없이 누구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필요한 쇼핑 혜택을 적시에 선택해 누릴 수 있는 서비스다. ‘펫 바우처’를 시작으로 연내 바우처의 혜택 범위를 결혼, 출산·육아 등 주요 생애주기로 확대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이라면 ‘멤버십 MY’ 페이지에서 자신의 반려동물의 정보(동물 종·성별·나이 등)를 등록해 펫 카테고리의 쇼핑 구매 시 맞춤형 할인과 적립 등 펫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려인에게 인기 있는 ‘로얄캐닌’, ‘힐스’ 등 총 11개사가 펫 바우처의 파트너 브랜드로 참여하며, 이들 브랜드 상품 구매 시 바우처 혜택이 제공된다. /김서현 기자